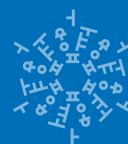


한국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PyeongChang 2018™



Welcome to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에서 27일간 펼쳐집니다.

새로운 기록, 새로운 기적, 새로운 지평을 여는 2018 평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9^(금) ~ 25^(일)까지 / 17일간

 15개 종목  102개 금메달

 95개 국가  2,900명 선수

수호랑(Soohorang)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은
백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수호랑은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들을 지켜주는
씩씩한 친구입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3.9^(금) ~ 18^(일)까지 / 10일간

 6개 종목  80개 금메달

 45개 국가  670명 선수

반다비(Bandabi)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는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반다비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졌고, 평등과
화합에도 앞장섭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친구입니다.



비전 | New Horizons

새로운 지평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깁니다.

슬로건 | Passion. Connected.

하나 된 열정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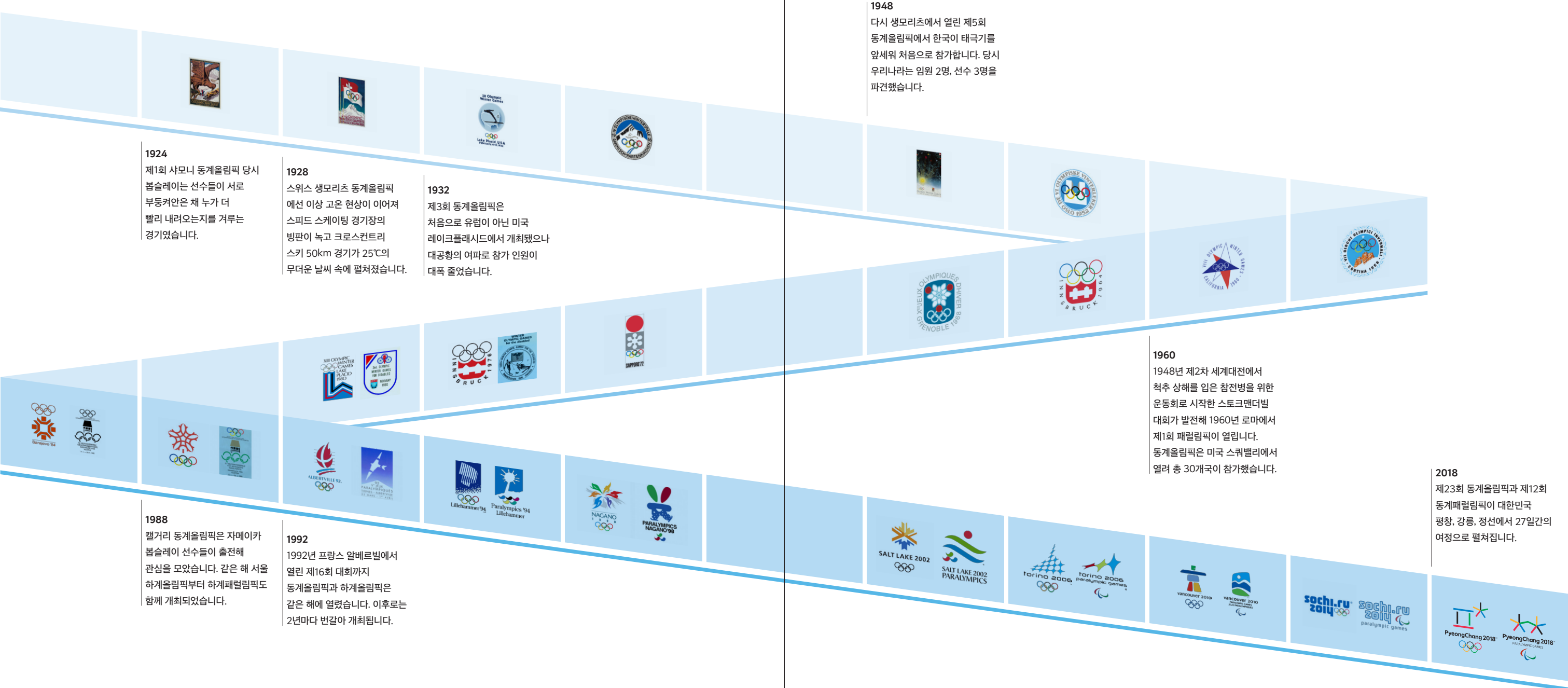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대회가 평창, 강릉, 정선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인이 동계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자리에 여러분의 열정을 더해주시요. 평창은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환희와 승리가 넘실거리며 함께 우정을 나누는
개최도시로 세계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정신과
한국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스포츠를 향한 하나 된
열정으로 도전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가 높은 대회,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어울림의 여정 속에서 평창은 아시아
동계스포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의 겨울 축제, 동계올림픽의 역사

2018년은 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한 지 94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대공황, 제1차·2차 세계대전 등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도 동계올림픽은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정신을 승화시키며 발전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동계올림픽의 시초부터 아시아 시대를 여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동계올림픽, 어떻게 시작됐을까?

처음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린 1908년 런던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의 시초입니다. 이후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 때는 피겨 스케이팅과 아이스 하키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동계대회를 따로 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국은 당시 겨울 스포츠 대회를 별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은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 하키, 노르딕 스키를 경기 종목에 포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제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1921년 IOC는 19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프랑스 파리로 결정하면서 별도로 ‘국제 겨울 스포츠 주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0년 로마에서 패럴림픽이 열리면서, 온전한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키워드와 숫자로 보는 2018 평창

2018 평창대회는 국가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원도 지역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새로운 기록을 선사할 2018 평창

2018 평창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지역 및 국가가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ICT(정보통신기술) 등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장이 됩니다.

2018 평창대회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투자 효과와 소비 지출 효과 등 직접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 활성화 등 간접적 효과를 포함해 경제적 효과가 약 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되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등 지역 자원이 전 세계에 소개됩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원도는 새로운 동계스포츠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6 그랜드슬램

1988 서울 하계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화 봉송 총 거리	금메달 수(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용
2,018 ^{km}	102 ^개	5G 네트워크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수	총 경제적 효과
30 ^년	22,400 ^명	649,000 ^{억원}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한 친환경 경기장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
7경기장	95 ^{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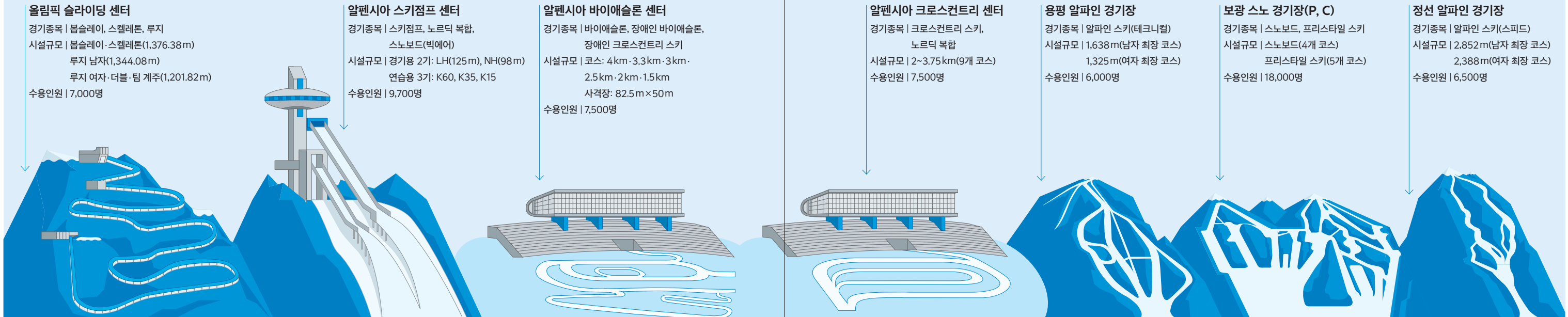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로 저탄소 올림픽 실현
15,900 ^t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특히 88 서울 패럴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과 함께 개최된 패럴림픽 대회였기 때문에 30년 만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패럴림픽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춘 ‘경기장’

평창, 강릉, 정선은 세계 선수들의 격전지로 최적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6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재정비되었고, 평창 올림픽 플라자를 포함해 7개의 경기장은 신설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공간. 세계 축제의 무대로 도약할 경기장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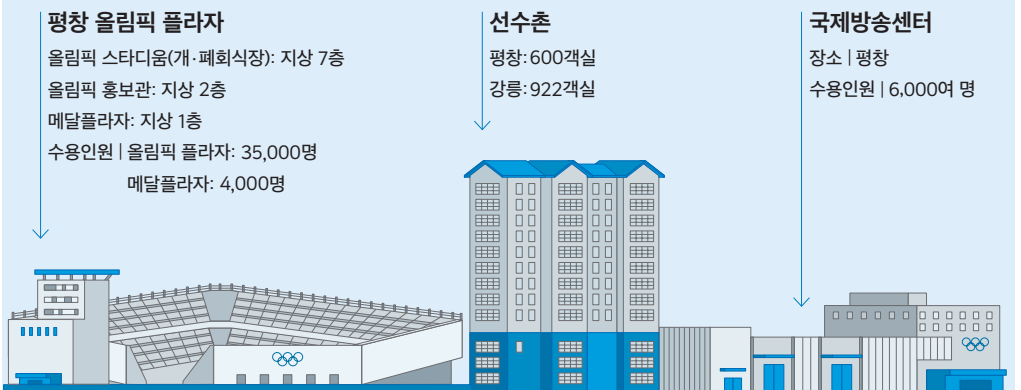
평창, 정선 | 설상 경기(눈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



강릉 | 빙상 경기(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



주요시설



선수 중심의 올림픽 구현

2018 평창대회의 감동이 펼쳐질 경기장은 모두 숙소에서 차량으로 30분대에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경기장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를 중심으로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 8개,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에 5개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가장 집약된 배치로 평가받는 경기장 시스템 내에서 선수들은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천혜 환경과 기술의 조화

동계스포츠에 최적화된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섬세한 기술력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환경을 완성합니다.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 내 경기장은 자연설과 인공설을 적절히 조화, 최상의 경기 조건을 마련합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는 최적 풍속인 초속 3m 이하로 평창의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방풍망을 설치합니다.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는 난이도가 다른 9개 코스를 조성해 선수들의 도전 의욕과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경기장

경기장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이후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했습니다. 강릉 컬링 센터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했습니다. 또 휠체어컬링 선수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를 비롯한 경기장은 전문 선수 육성 시설부터 문화와 레저, 스포츠 시설이 복합된 시민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승리를 향해,
경기 종목 소개

동계올림픽 102개, 동계패럴림픽 80개의 금메달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접전.
벽찬 감동을 선사할 다양한 경기 종목과 경기 일정을 소개합니다.

경기 일정

● 일반 경기(예선 등) ● 메달 결정전

종목/ 경기 일자(2018. 2)	8 목	9 금	10 토	11 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일
개회식		●																
알파인 스키				●	●	●	●	●		●	●			●	●	●	●	
바이애슬론			●	●	●		●	●		●	●		●		●	●		
봅슬레이												●	●				●	●
크로스컨트리 스키			●	●		●		●	●	●	●			●			●	●
컬링	●	●	●	●	●	●	●	●	●	●	●	●	●	●	●	●	●	●
피겨 스케이팅		●		●	●		●	●	●	●		●	●	●		●		●
프리스타일 스키		●		●	●			●	●	●	●	●	●	●	●	●		
아이스 하키			●	●	●	●	●	●	●	●	●	●	●	●	●	●	●	●
루지			●	●	●	●	●											
노르딕 복합							●						●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			●				●			●		●			
스켈레톤								●	●	●								
스키점프	●		●		●			●	●	●		●						
스노보드			●	●	●	●	●	●	●			●		●	●	●	●	
스피드 스케이팅			●	●	●	●	●	●	●		●	●		●		●	●	
폐회식																		●

*경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장애인 알파인 스키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
올림픽: 남자/여자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단체전
패럴림픽: 남자/여자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슈퍼복합

바이애슬론/장애인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해 선수들은 총을 등에 멘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며,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종목
올림픽: 남자/여자 개인, 스프린트, 추적, 단체출발, 계주, 혼성 계주
패럴림픽: 남자/여자 개인, 스프린트, 중거리, 장거리, 혼성 계주, 오픈 계주

크로스컨트리 스키/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오르막, 내리막, 평지 비율이 3분의 1씩 구성된 코스를 정해진 주법으로 주행하는 종목
올림픽: 남자/여자 프리, 스키애슬론, 계주, 클래식, 스프린트 클래식, 스프린트 프리, 단체출발 클래식
패럴림픽: 남자/여자 스프린트, 중거리, 장거리, 혼성 계주, 오픈 계주

프리스타일 스키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기 때문에 자유롭고 익스트림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스키 종목
남자/여자 스키 크로스(SX), 모글(MO), 에어리얼(AE), 스키 하프파이프(HP), 스키 슬로프스타일(SS)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함께 치르는 종목
남자 노멀힐 개인 10km, 라지힐 개인 10km, 라지힐 팀 4×5km

스키점프
스키를 타고 인공으로 만든 급경사면을 활강하여 내려오다 도약대에서 착지까지 가장 멀리, 안정적으로 비행해 착지하는 종목
남자 노멀힐 개인, 라지힐 개인, 팀/여자 노멀힐 개인

스노보드/장애인 스노보드
보드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내려오며 속도, 예술성을 평가하는 종목
올림픽: 남자/여자 평행대회전(PGS), 하프파이프(HP), 스노보드 크로스(SBX), 슬로프스타일(SS), 빅에어(BA)
패럴림픽: 남자/여자 밴크드슬라롬, 스노보드 크로스(SBX)

컬링/휠체어컬링
두 팀이 약 20kg의 스톤(Stone)을 번갈아 던져서 하우스(House)라 불리는 과녁 중심에 더 가까이 보내는 팀이 점수를 획득하는 종목
올림픽: 남자, 여자, 혼성
패럴림픽: 혼성

피겨 스케이팅
음악에 맞추어 스케이트를 타면서 얼음판 위를 활주하며 점프, 회전, 예술적 연기를 수행하는 종목
남자/여자 싱글, 페어, 아이스 댄스, 팀 이벤트

아이스 하키/장애인 아이스 하키
각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스케이트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고무 원판의 puck을 스틱으로 쳐서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종목
올림픽: 남자/여자
패럴림픽: 오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트를 신고 111.12m의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순위를 겨루는 종목
남자 500m, 1000m, 1500m, 5000m 계주/여자 500m, 1000m, 1500m, 3000m 계주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트를 신고 400m의 실내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속도를 겨루는 종목
남자 500m, 1000m, 1500m, 5000m, 10000m, 매스스타트, 팀추월/여자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매스스타트, 팀추월

봅슬레이
평균시속 135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스포츠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남자 2인승, 여자 2인승, 오픈 4인승

루지
소형 썰매에 발을 전방으로 향한 채 누워 경사진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남자/여자 싱글, 더블, 팀 계주

스켈레톤
소형 썰매에 엮드린 채 어깨와 머리,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여 조종하며 경사진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남자/여자

알고 보면 재미있는 동계스포츠 5문 5답

치열한 두뇌 싸움을 겨루는 컬링부터 박진감 넘치는 아이스 하키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동계스포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의 종목은?

대회의 서막을 여는 경기는 평창에서 신규 종목으로 채택된 남녀 혼성 컬링(공식명: 믹스더블)입니다. 기존 컬링은 선수 4명이 역할 분담을 했다면, 이 경기에는 남녀 선수가 각각 1명씩 참가합니다. 4명의 역할을 2명이 소화하는 만큼 남녀 선수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엔드에 던지는 스톤도 기존 8개에서 5개로 줄어 더욱 집중력 높고 스피디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동계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아이스 하키입니다. 아이스 하키는 속도감 있는 스케이팅과 격렬한 몸싸움에 관중의 함성까지 더해 짜릿함과 즐거움을 전하는 경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아이스 하키 국가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진출권을 얻은 상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믹스더블



아이스 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2 올림픽에는 3대 썰매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3대 썰매 종목으로 불리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리고 루지는 썰매를 타는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봅슬레이는 여러 명이 한 썰매에 앉아서 타는 종목이고, 스켈레톤은 선수가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며, 루지는 하늘을 보고 누워서 썰매를 타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모두 시속 100km 이상으로 활주해 100분의 1초(봅슬레이, 스켈레톤) 또는 1,000분의 1초(루지)의 기록을 다투는 경기이므로 지속적으로 가속도를 내면서 활주하는 것이 좋은 기록을 내는 비법입니다. 또 경쟁력 있는 출발 없이는 메달권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본다면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성적의 스켈레톤 선수들은 출발 지점에서부터 최대로 힘과 가속을 붙여 썰매를 밀어 초기 50m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속 30km로 약 5초대 이내입니다. 엄청난 속도와 한계를 견뎌내는 선수들을 현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3 스키 종목이 다양한데, 종목별 스키 장비의 차이점은?

일반 스키 장비와 가장 차이가 큰 종목은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먼저 스키점프는 일반인 이 스키장에서 신는 스키보다 매우 큰 스키를 사용합니다. 스키점프 선수들은 하늘을 오래 날아서 더 멀리 착지하기 위해 길고, 폭이 넓고, 무거운 스키를 신습니다. 그렇다고 길이가 무조건 길어선 안 되며, 선수 키의 145%를 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기본적인 장비로는 스키와 폴 그리고 부츠입니다. 클래식 스키와 프리 스키로 구분하며, 클래식 스키가 프리 스키보다 길고 폴은 프리 폴이 클래식 폴보다 긴 편입니다. 장비는 일반 스키 장비보다 대체로 가벼운 소재로 제작합니다. 오래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복은 스판 재질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모자와 장갑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스키를 탑니다.

4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경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패럴림픽 대회 시 선수들이 최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 진행 방식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기장을 조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사격을 할 때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이어폰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와 한 팀을 이뤄 출전합니다. 경기 중에 선수는 가이드와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가이드의 목소리만 안내를 받아 스키를 탑니다. 선수들이 가이드의 소리에 의지해 경기를 하므로 스키장의 공공 방송이나 제설 장비 등 소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선수와 가이드는 한 팀으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가이드와 한 몸처럼 경기를 치렀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우정과 동행의 행복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장애인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5 동계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목과 가장 최근에 탄생한 종목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6,000년 전 러시아의 동굴 벽화에서 발견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목입니다. 이후 스키의 역사는 군대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스웨덴 군인들은 스키를 필수 장비로 보유하고, 1767년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군인들의 크로스컨트리 스키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후로 시대변천에 따라 차츰 스포츠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역사가 가장 짧은 동계스포츠 종목은 스노보드입니다. 스노보드는 미국 산악 지방에서 처음 등장, 1960년대에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녀 총 10개 종목으로 확장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일반 건물 10층 정도 높이에서 도약하며 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빅에어를 처음으로 공식 세부 종목으로 채택해 설원 가득 아찔한 스릴을 몰고 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며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겨울 선수'들이 있습니다.

365일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 최근 펼쳐진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평창의 메달 전선을 밝히고 있는 동계스포츠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세계 제패를 꿈꾸는 에이스 콤비

원윤종·서영우 선수 | 봅슬레이

원윤종 선수와 서영우 선수는 2인승 봅슬레이 파트너입니다. 원윤종 선수가 썰매를 조종하는 파일럿이라면, 서영우 선수는 뒤에서 썰매를 미는 브레이크맨입니다. 봅슬레이가 코스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정력이 우승을 좌우하는 경기인 만큼 두 선수의 완벽한 팀워크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딘 보답일까요. 100kg이 넘는 몸무게의 두 선수 모두 100m 달리기를 11초 만에 완주하는 스피드로 세계 정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메달은 갈고닦은 기량을 있는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잘해야지 하는 다짐으로 시합에 임하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 8일 평창위너스와 인터뷰에서,
윤성빈 선수



빙상 위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 |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스켈레톤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세계 정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빠른 성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2016-17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1위 선수와 0.01초 차로 2위를 차지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강점은 4초 70대의 빠른 초반 스피드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기록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평창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영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예측 불가, 질주의 승부사

김보름 선수 | 스피드 스케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규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타트는 여러 명의 선수가 레인 없이 400m 트랙을 16바퀴 돌며 경쟁하는 경기입니다. 쇼트트랙을 통해 매스타트 선수로 전향한 김보름 선수는 본능적으로 자리 선정에 능숙하며 쇼트트랙을 통해 곡선 주로 주파 능력, 추월과 몸싸움 기술, 강인한 체력을 갈고닦은 준비된 승부사입니다. 초반 스타트와 직선 주로 주파 능력만 보강한다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매스타트라는 새로운 영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동을 안겨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홍보대사 위촉 기자회견,
이상화 선수



빙속 여제의 세계 최강 스타트 파워

이상화 선수 |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와 함께 소치에서 금메달(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을 목에 걸었던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는 500m를 37초대에 돌파하는 세계 랭킹 상위권으로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빙속 여제입니다. 이상화 선수의 강점은 하체에서 나오는 빠른 스타트입니다. 경기 시 이상화 선수가 처음 100m를 몇 초대로 기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소치에서 깜짝 금메달을 선사한 만큼, 평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3연패를 달성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인 최초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

이승훈 선수 | 스피드 스케이팅

소치의 영웅, 이승훈 선수는 최근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한국 선수 최초로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유력한 메달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의 강점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몸싸움과 코너링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발휘해 매스타트를 비롯한 장거리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평창에서는 5000m, 10000m의 장거리뿐 아니라 팀추월, 매스타트까지 다양한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게 쇼트트랙이란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쇼트트랙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선수,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 그리고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로 여러분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평창위너스와 인터뷰에서,
최민정 선수

천재 소녀의 질주 본능

최민정 선수 |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는 현재 쇼트트랙 1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2분 14초)입니다. 2016-17 시즌 솔트레이크시티 월드컵 쇼트트랙 1500m에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기대주로 등극했습니다. 6세 때 스케이트를 시작한 최민정 선수는 생애 첫 출전한 2015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천재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기술과 스피드를 겸비해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순간 스피드가 세계 최강이어서 약한 스타트를 보완하며 압도적인 결과를 내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입니다.

소치 올림픽 역전승의 여신

심석희 선수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는 지난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코스 역전승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주역입니다. 당시 쇼트트랙 여자 1000m, 1500m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승부의 여제로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173cm의 신장, 뛰어난 지구력, 긴 다리를 활용한 시원한 질주,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스케이팅 실력을 장점으로 갖춘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이 강한 1000m나 1500m뿐만 아니라 500m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며 올라운드 스케이터로 도약을 앞둔 선수입니다.

환상의 팀워크

양재림 선수·고운소리 가이드 | 장애인 알파인 스키

2010년부터 스키를 탄 양재림 선수는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4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양재림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호흡을 맞춘 고운소리 가이드와 함께 설원을 질주하며 평창에서 메달권 진입을 노릴 예정입니다. 알파인 스키 시각장애 부문 회전 종목과 대회전 종목의 출전권을 모두 획득한 두 사람은 현재 메달 1개 이상은 꼭 따내는 목표로 훈련 중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두 선수, 평창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해낼길 응원합니다.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 선수 | 장애인 아이스 하키

장애인 아이스 하키는 비장애인 하키와 규정이나 경기장은 같지만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고 하는 경기입니다. 14번 번호를 달고 있는 정승환 선수는 2009년 체코 세계선수권, 2012년 노르웨이 세계선수권, 2015년 스웨덴 세계선수권에서 최우수 공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빙판 위의 날쌔고 빠르며 그라운드를 휘젓는 메시와 흡사하다고 해서 '빙판 위의 메시', '로켓맨' 등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립니다. 최근 유럽 강호들을 제압하며 승승장구하는 국내 장애인 아이스 하키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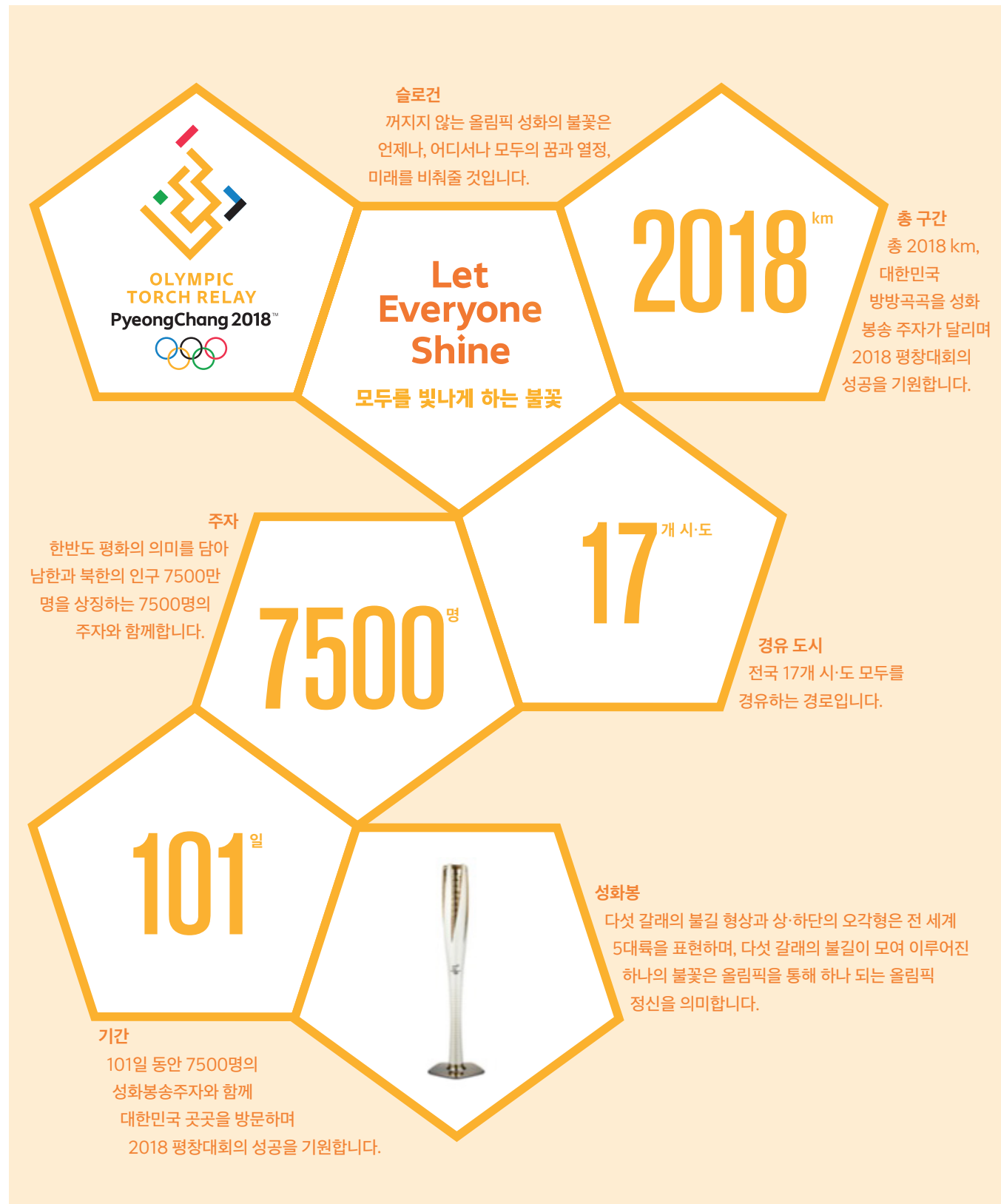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프런티어

신의현 선수 | 노르딕 스키(장애인 바이애슬론 &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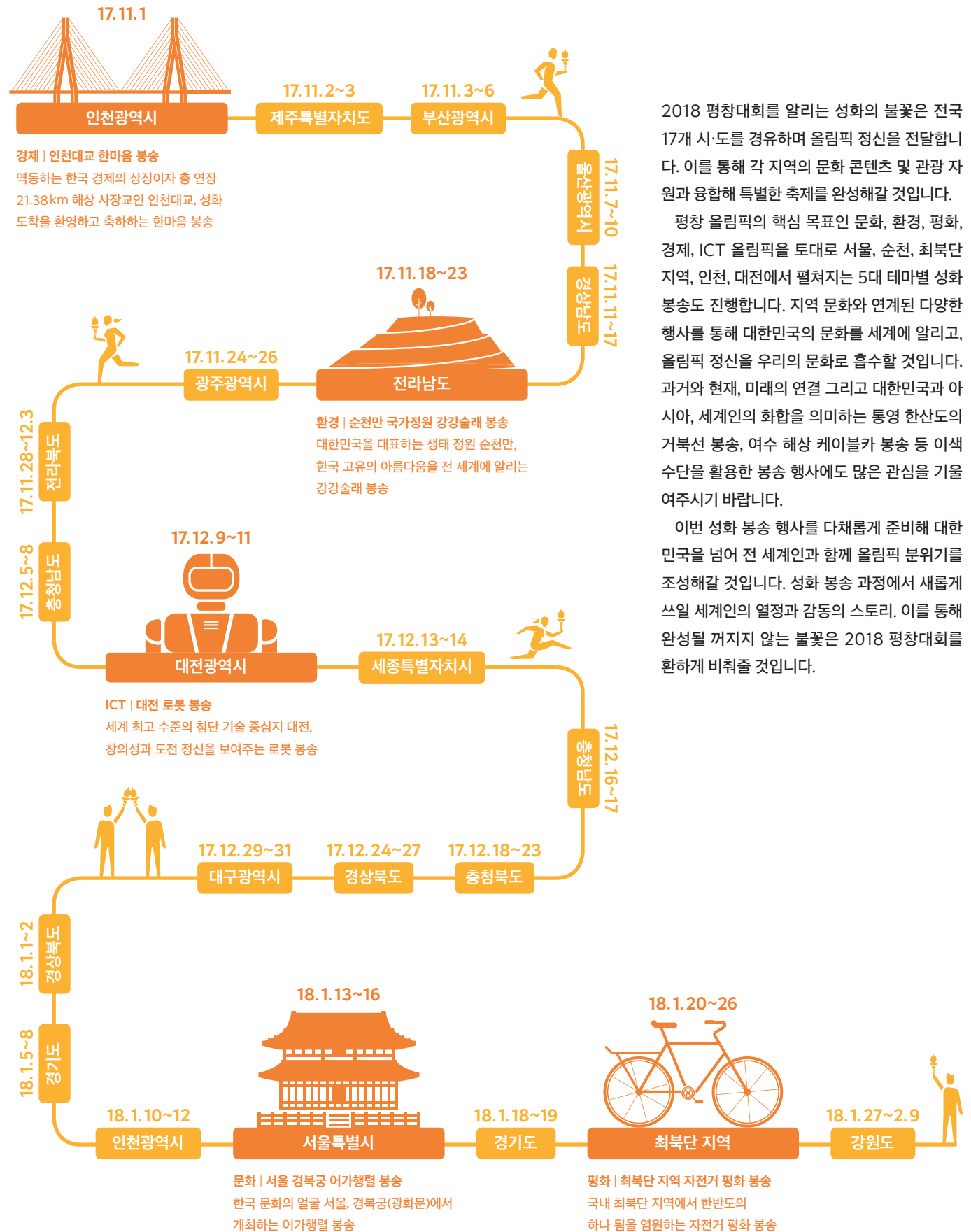
평창 동계패럴림픽 노르딕 메달 기대주로 꼽히는 신의현 선수. 3월 15일에 열린 2017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크로스컨트리 남자 좌식 중거리(7.5km)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 첫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7.5k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신의현 선수는 대회 둘째 날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거리(15km)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평창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한국 장애인 스키의 역사로 기록될 질주를 이어가며 대표팀의 '복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화합의 불꽃, 올림픽 성화 봉송

2017년 10월 24일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채화된 평화의 불꽃은 11월 1일 대한민국의 입구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7500명의 주자가 101일 동안 2018km 구간을 지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완성됩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 101일간의 빛나는 여정



2018 평창대회를 알리는 성화의 불꽃은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하며 올림픽 정신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자원과 융합해 특별한 축제를 완성해갈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핵심 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 올림픽을 토대로 서울, 순천, 최북단 지역, 인천, 대전에서 펼쳐지는 5대 테마별 성화 봉송도 진행합니다. 지역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정신을 우리의 문화로 흡수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세계인의 화합을 의미하는 통영 한산도의 거북선 봉송, 여수 해상 케이볼카 봉송 등 이색 수단을 활용한 봉송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화 봉송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과 함께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해갈 것입니다. 성화 봉송 과정에서 새롭게 쓰일 세계인의 열정과 감동의 스토리. 이를 통해 완성될 꺼지지 않는 불꽃은 2018 평창대회를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面 강릉, 전통의 아름다운 얼굴

강릉은 깊고 푸른 바다의 문화와 전통으로 향기로운 고장입니다. 신사임당이 울곡 이이를 낳은 곳이자,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과 그의 누이 허난설헌이 살았던 곳.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사랑한 풍경은 여행자에게 평화로운 여유와 색다른 영감을 선사합니다.

물이 깨끗해 겨울 같은 호수라 불리는 경포호는 강릉의 낭만을 전하는 명소입니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수많은 시인과 객들이 달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경포호를 찾는 여행자는 5개의 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포대 정자에 임과 마주 앉아 있으면, 하늘과 바다, 호수와 숲잔, 임의 눈동자에 5개의 달이 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흐릅니다.

검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오죽헌과 사대부의 기상이 느껴지는 선교장은 선비 정신이 느껴지는 고택입니다. 매일 새벽 초당두부마을에서는 동해 바닷물로 떠간한 두부를 완성하고, 정동진의 일출은 세상을 물들이며 아침을 알립니다. 매일이 아름다운 강릉, 완벽한 여행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目 정선, 선한 눈빛에 담긴 서정

앞산과 뒷산을 이어 빨랫줄을 뿔 수 있는 곳, 닭이 울면 그 소리가 온 고을을 메우고 이웃집 닭이 살찌도 훑쳐가는 사람이 없는 곳. 느리고 단조로운 아리랑 가락을 담은 선한 사람들의 고장, 정선은 따뜻하고 정겨운 마을입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원지인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으로 향하는 뗏목이 출발하는 곳이자, 외부에서 배가 들어오는 나루였던 이곳을 중심으로 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정선이 관광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자 시장과 도시의 활기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한때 석탄을 실어 나른 옛길이었던 운탄고도는 아름답게 남아 탄광업의 역사를 증명합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는 옛 지게꾼들이 높은 태백산맥 고개를 넘어가며 팔았던 약재와 단오에 먹었던 수리취떡, 짭짤한 메밀 면발이 콧등을 친다는 콧등치기 국수 등 소박한 먹거리 좌판이 웅기종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시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변천해온 우리의 노래, 아리랑의 서정을 담은 도시 정선에서 활기찬 생활과 한국인의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교통 시스템

2018 평창대회 기간에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과 선수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 대책

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강릉을 연결하는 KTX를 1일 51회 운영, 하루 평균 2만 910명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환승주차장 | 진부역(오대산)과 강릉역 등지에 주차장 10개소를 마련해 1만 1,170대의 버스 및 승용차를 수용합니다.

관중셔틀버스 | 1,200대의 관중셔틀버스는 철도역-선수촌-경기장, 환승주차장-경기장 연결, 교통 혼잡을 방지합니다.



고속도로

- 수도권 |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 광주원주고속도로(강릉 방면),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방면)
- 충청권 | 중부고속도로(호법 분기점)/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
- 영남권 | 중앙고속도로(만종 분기점)/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
- 호남권 | 호남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신갈 분기점)/중부고속도로(호법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

기차,

고속철도(KTX)

- 인천공항 ↔ 강릉을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고속철도(KTX) 노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수, 대전 등 주요 도시와 개최지의 KTX 연결로 이동 편리성 확보
- 개최지 인근에 주요 역사인 진부역, 강릉역 신설 공사 진행 중

국도

- 대회 기간에 고속도로의 우회로 및 KTX역에서 경기장까지의 이동 경로로 운용
- 국도 6호선(둔내~무이~장평~간평): 둔내IC와 대관령IC, KTX 진부역을 연결
- 국도 59호선(막동~마평, 나전~막동): 진부IC에서 정선으로 연결

관중셔틀버스

- 대회 기간에 강릉, 횡계, 진부의 수송물을 중심으로, 경기장, 대중교통 거점, 환승주차장을 유기적으로 연결
- 자가용 차량 이용 관중은 개최지 인근 환승주차장에 주차 후 셔틀버스 시스템 이용, 경기장으로 이동 가능
- 입장권 소지 관중은 셔틀버스 무료 이용
- 운영 기간: 개최식 1일 전부터 폐회식 1일 후까지
- 운영 시간: 매일 첫 경기 3시간 이전부터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이후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



입장권 QR코드

판매 일정 및 방식

구분	진행 절차	기간	장소
온라인	선착순 판매	2017. 09. 05~대회 종료	www.pyeongchang2018.com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구매 가능
	글로벌 판매	2017. 11. 01~대회 종료	
	FAN-TO-FAN(개인 간 거래)	2017. 10. 01~대회 종료	
	패럴림픽 온라인 판매	2017. 08. 21~대회 종료	
오프라인	메인티켓센터	2017. 11. 06~대회 종료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주요 KTX역(19개), 김포·인천공항 경기장 부근
	아울렛	2017. 11. 06~대회 종료	
	박스오피스	2017. 02. 08~대회 종료	

해외에서의 입장권 구매는 국가별 ATR(홈페이지 참조) 또는 IPC, GAT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객센터: 1544-4226

판매 가격(*패럴림픽)

구분	종목	좌석 등급 / 가격(원)			
		A석	B석	C석	D석
개회식		1,500,000 *140,000	800,000 *70,000	600,000 *30,000	220,000
폐회식		950,000 *70,000	600,000 *30,000	400,000 *10,000	220,000
설상	알파인 스키	130,000~160,000 *16,000	60,000~80,000	-	-
	바이애슬론	100,000 *16,000	20,000	-	-
	크로스컨트리 스키	70,000 *16,000	20,000	-	-
	프리스타일 스키	120,000~180,000	60,000~80,000	-	-
	노르딕 복합	100,000	20,000	-	-
	스키점프	120,000~200,000	60,000~100,000	-	-
빙상	스노보드	120,000~180,000 *16,000	60,000~80,000	-	-
	컬링	40,000~150,000 *16,000~40,000	-	-	-
	피겨 스케이팅	550,000~800,000	350,000~500,000	150,000~220,000	-
	아이스 하키	60,000~900,000 *16,000~50,000	40,000~600,000 *10,000~30,000	20,000~300,000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550,000	350,000	150,000	-
	스피드 스케이팅	250,000	150,000	-	-
슬라이딩	봅슬레이	70,000~100,000	20,000~40,000	-	-
	루지	70,000~100,000	20,000~40,000	-	-
	스켈레톤	70,000~100,000	20,000~40,000	-	-

유의 사항

- 입장권 대금 결제는 VISA카드 또는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만 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음(오프라인 구매 시 취소, 환불 불가)

입장권 소지자 혜택

- 주요 경기장 간 셔틀버스 무료 이용
- 매일매일 각종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 무료 관람
- 원클릭 서비스(입장권+교통+숙박)
http://pyeongchang.kaltour.com

올림픽의 감동을 간직하세요!

2018 평창대회
기념 상품 프로그램

2018 평창대회의 다양한 공식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식
스토어에서 올림픽의 감동을 미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마스코트 인형, 텀블러, 티셔츠 등을 통해 올림픽을 함께 기념하고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공식 라이선스 상품 구입처

구분	스토어 정보		비고	
온라인	엘롯데(롯데백화점 온라인몰)	www.ellotte.com에서 '평창' 검색	스포츠 브랜드 의류 및 용품 판매	
	노스페이스 온라인몰	www.thenorthfacekorea.co.kr에서 '평창' 검색		
오프라인	롯데백화점 본점(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9층	T. 02-772-3995	
	롯데월드타워 잠실 에비뉴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지하 1층 왕관 앞	T. 02-3213-2500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8층 기프트존	T. 02-3213-3700	
	국립중앙박물관 내 3개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서관 1층 으뜸홀 옆	T. 02-2077-9769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1층 중앙	T. 02-2077-9771	
		국립중앙박물관 서관 1층 어린이박물관 옆 어린이문화상품점	T. 02-2077-9773	
	국회 문화상품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방문자센터 1층	T. 02-761-054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T. 02-739-9297	
	정부세종청사 문화상품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3동 2층	T. 044-868-068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컬처숍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지하 3층	T. 062-229-0787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1층 로고숍	T. 033-330-7159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호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위즈덤	T. 033-339-0687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T. 033-245-6472	
	노스페이스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6층	T. 02-772-3760
		명동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8	T. 02-3789-1009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철도문고서울역롯데아울렛 노스페이스 4층	T. 02-6965-2809
		타임스퀘어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단지 2층	T. 02-2638-2427
		롯데백화점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5층	T. 02-2143-7545
		롯데월드몰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T. 02-3213-4320
		스타필드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3층	T. 031-8072-8460
		신세계 파주아울렛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T. 031-8071-7546
		롯데 파주아울렛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B블록 2층	T. 031-960-2792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문화의길 9	T. 033-642-8838
			스포츠 브랜드 의류 및 용품 판매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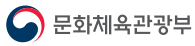


공식 스폰서



공식 공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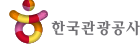
파고다교육그룹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봄바르디에
삼성증권	대동공업	한샘	삼성물산
에쓰-오일	한진	한진관광	화웨이
쥬서울텐트			



www.mcst.go.kr



www.provin.gangwon.kr



www.visitkorea.or.kr



www.happy700.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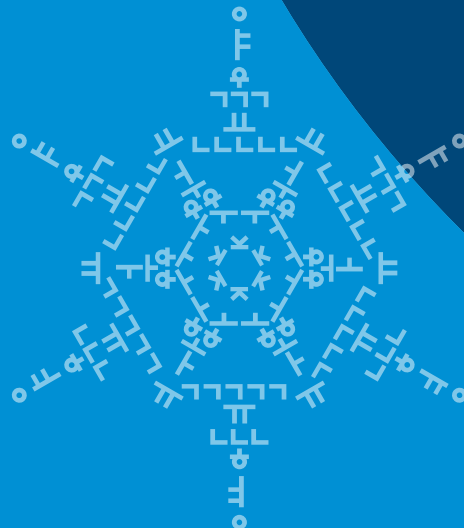
www.gangneung.go.kr



www.jeongseon.go.k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www.PyeongChang2018.com



/PyeongChang2018



본 책자는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만들어졌습니다.